

“고민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법륜 스님, 부산 KBS홀 강연에 인파 몰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의 즉석즉문 강연이 6월 16일 부산 KBS홀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2012년 희망 세상 만들기 전국 시, 군, 구 강연회 여름 100회 강연'의 67번째 강연이다.

법륜 스님은 강연 시작에 앞서 “우리 인생 얘기를 해보자.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하며 재미있게 놀다 가지”라고 밝히며 명쾌한 즉설과 특유의 재치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 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게 현대적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법륜 스님의 설법은 남녀노소, 종교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 고민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강연 분위기를 유머로 풀어내는 재치도 빼놓을 수 없다.

법륜 스님은 30대 후반의 아들이 장가를 안가서 속단다는 질문에 “아들이 장가가는 것은 아들이 결정할 일로 대신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말 그것이 걱정이라면 아

들이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장가까지 않는 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답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법륜 스님은 “그저 건강히 지내는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위로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마다 신체구조에 대한 열등감을 가

아들 장가 안가, “나도 안가” 건강에 감사하면 걱정 사라져

지고 있는데, 신체는 좋고 나뭇이 없으며 작다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공(空)’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라 착각할 뿐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 삼라만상의 만 가지 번뇌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즉문즉설을



법륜 스님의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스님과 웃고 울으며 그동안 가슴의 응어리를 풀었다.

통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즉 사실상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곧 받아심경의 ‘공(空)’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3000명 입장 가능한 이날 행사에는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강당 안은 가득찼다. 강당 안에 입장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통로와 바닥에 앉아 복도에 설치된 TV를 통해 강연을 들었다.

한편, 최근 안철수 원장의 멘토로 알려지면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륜 스님의 이번 여름 강연은 5월 1일 울산서 출발해 100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여름강의 회향 법석은 8월 20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개최된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지역소식

월드승가회 독도수호수룩대제 봉행

공익법인 월드승가회(회장 무승)가 주최하고 독도수회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독도수회국행수룩대제가 경북도청 독도수호팀의 후원으로 지난 6월 6일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봉행됐다.

월드승가회 사무총장 범봉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라불교는 ‘통일불교’, 고려불교는 ‘호국불교’, 조선불교는 ‘구국불교’라고 칭하는데 이시대의 불교는 무엇으로 정의하여 불러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수호불교’로서 국권을 수호하여 영토를 지키는 것이 곧 불교를 수호하는 바탕이 됨을 명



심하자”고 당부했다.

공익법인 월드승가회는 건국열사 및 애국지사 추모, 한국전쟁 참전유엔군 전사장병 위령 및 참전부대 위문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세상을 향기롭게’ 사무소 개소식

(재)세상을 향기롭게(이하 세향기) 법인사무소 개소식이 6월 8일 해운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세향기 법인설립추진위원회 대표 정여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이웃,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며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

을 따뜻한 손길로 감싸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스님, 범어사 금강암 안주 정만스님, 이윤희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이웃,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며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

이재진 부산지사장

‘노인 학대인식의 날’ 부산 곳곳서 효 행사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EAAD)을 기념해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7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식’이 6월 1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혜충 스님이 노인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의 대처능력 향상으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16개구·군 각 단체 노인일자리사업단과 함께 박오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손상용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을 비롯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前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현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혜충 스님은 “60~70년 격동의 한국을 이끈 주역인 70~80대 분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며 “사회가 노인의 안전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 위한 ‘실버인권지

킴이단’과 ‘실버스마일 사업단’ 발대식이 진행됐으며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과 실버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다음날인 16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도 응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분포복지회와 함께 해군작전사령부의 후원으로 부산환경공단남부사업소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큰잔치는 두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령화 사회, 독거노인시대에 소외받는 어르신을 위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부산불교포럼, 수불 스님 초청법회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허인구)이 6월 19일 코모도 호텔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다.

허인구 회장은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며 “한국불교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부산에서 불교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포럼의 책임이 막중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재가불자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지도자 포럼 회원들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더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사 주지 유정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불자 기업인과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연대해 2006년에 창립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부산 지역 불교 학술 행사와 대학생 불교 단체를 후원해 오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본부...백일장 열어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선암사 주지)는 6월 16일 부산연합회교육관에서 부산시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제 5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꽃,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본 행사가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적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청소년들의 생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며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등부 주제는 ‘고민, 대화’, 고등부 주제는 ‘뿌리, 달빛’이었으며, 부산광역시장상을 비롯한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되는 이번행사의 결과 및 시상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 불광사, 여래불 이운 7일 기도 법회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동관)는 6월 20일 동방 약사여래대불 이운 7일기도 법회를 봉행했다. ‘고통 받는 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밝은 빛이 한량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되 모든 중생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기원’하는 약사여래 12대원을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직지사 노인요양원 미소동 개원

‘직지사 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대항면)이 건물 한 동을 증축했다. 6월 19일, 직지사 노인요양원은 지상 3층 연면적 2천 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증축건물 ‘미소동’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직지사 노인요양원 ‘미소동’ 증축에 따라 기존 수용인원 50명에서 98명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직지사 노인요양원은 66명의 중증 질환자 어르신이 입원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방송 문예마당 개최

대구불교방송과 대구과라미타 청소년 협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8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6월 23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기와 글짓기, 4컷 만화 그리

기와 디지털카메라 사진촬영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렸다. 대구불교방송은 심사를 거쳐 우수작 300여점을 선정한 뒤 다음달 7월 10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bs.co.kr)를 통해 발표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승사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석대재비) (사무총장 : 석능각)

| | | | | | | | |
|--|--|--------------------------------------|------------------------|-------------------------------------|------------------------|-------------------------------------|--|
|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겸 부 회 장 석만월 |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 | |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범승 |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중를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중앙무술위원장 손연자
중앙정책위원장 엄태일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종단발전협의회

회 장 석우암 부회장 석원명 총 무 석현중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이사진 및 정회원 수시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려증 발급 할일 분은 필히 티종단 수계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주인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신청서 1통
- 승려증 사본 첨부
- 승려증 발급 신청서 1통
- 승려증 사본 첨부
- 승려증 발급 신청서 1통
- 승려증 사본 첨부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건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